

여수, 지난해 살림살이 잘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세입·자산 등 증가 2014년 909억→8억6천만 원 '채무 제로화'

여수시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살림살이로 재정건전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은 1조4천491억 원, 자산은 6조8천577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3.1%, 1.5% 증가했다.

특히 2014년 909억 원에 달했던 채무는 올해 4월 현재 8억6천만 원으로 대폭 낮췄다. 잔여 채무인 하수도특별회계 8억6천만 원도 전액 국비로 상환 중이어서 여수는 사실상 채무 제로 도시가 됐다.

4년여 간 900억 원 상당의 채무 상환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과감히 감축하고 투자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하는 여

수시의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여수시의 높은 재정건전성은 세입과 세출, 자산 규모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여수시의 2017년도 세입결산 현황은 2016년 대비 13.1%(1675억 원)가 증가한 1조4천491억 원을 기록했다.

세입증가 요인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가 꼽힌다. 여수국가산단 내 석유화학업체의 영업이익 상승으로 지방세가 2016년 대비 396억 원이 증가한 2928억 원이 걸렸다. 지방교부세는 361억 원이 증가한 2천805억 원을 기록했다.

세출도 2016년에 비해 증가했다. 2017

년 세출규모는 2016년 대비 11.8%(1천110억 원) 증가한 1조509억 원이었다. 1인당 재정지출액은 319만 원으로 분석됐다.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2천849억 원이었다.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상 여수시의 2017년 총자산은 6조8577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비해 1천18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운영차액도 2016년보다 417억 원이 늘었다. 2017년 총수익은 1조304억 원, 총비용은 8천348억 원으로 한 해 운영차액은 1천956억 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꾸준한 세입확충 노력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재정규모가 대폭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205kmw@

진도, 아리랑 탁구장 개장

진도군은 지역 탁구동호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진도 아리랑 탁구장을 최근 완공하고 지난 7일 개장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탁구장은 2016년 9월 착공해 지난 3월에 준공했으며, 그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정식 개장했다.

진도 아리랑 탁구장은 사업비 8억4천만 원을 들여 진도읍 동외리 일원에 500㎡의 부지에 지상 1층 건물이다.

이곳에는 10면의 탁구대 설치 가능한 경기장,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등의 현대식 시설을 갖춰 군내 동호인들이 탁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개관을 기념해 전남 서남부 탁구클럽 30개팀 150여명이 참석, 전남 서남부 탁구 동호회 클럽 리그전이 개최됐다.

정대진 회장(진도군탁구협회)은 "탁구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돼 매우 기쁘다"면서 "군민 건강증진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비롯 진도군 탁구발전과 동호인 저변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올해 ▲진도 아리랑 배드민턴 전용구장 ▲야구장 등 신규 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공설운동장 잔디우레탄 교체 ▲럭비 구장 정비 ▲축구 보조구장 기능개선 사업 등을 실시해 전국대회,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아정 기자 chaajung@

광양, 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실 개소

시 최초...전용 시설 구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대

광양시는 9일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시 최초로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보호자, 치매의료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시설 운영에 대한 안내와 보호자들을 격려했다. <사진> 이번 개소한 치매전담실은 지역 내 치매노인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7억6천400만 원이 투입돼 301㎡ 규모로 1인실과 2인실 각각 1개, 3인실 3개가 마련됐다.

이번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실 개소로 치매국가 책임제로서 다양한 유형의 치매증상별 어르신들을 상황에 맞게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치매노인을 포함한 기존의 요양원 입소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과 달리 전용 시설을 통해 치매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치매에 따른 문제 행동 지연을 위해 매일 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공간이 마련돼 있다.

아울러 치매전문 교육을 수료한 요양보



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관리자로 배치돼 치매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실 개소가 치매가 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책임임을 인식하고, 그 시작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안심지원이 될 수 있는 치매전담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지난 6일 순천 3호 기적의 놀이터 준공식에 500여명의 어린이와 주민들이 함께 했다.

순천 '기적의 놀이터 3호' 문 열어

'시가모노' 놀이터 준공...세계적 놀이터 디자이너 권터 벨치히 참여

순천시의 세 번째 기적의놀이터 '시가모노'가 문을 열었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에 열린 준공식에는 그동안 시가모노 놀이터의 최종 완성을 기다리던 500여명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준공식에는 놀이터활동가와 함께 미꾸라지 잡기, 로봇과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 동산초등학교 어린이댄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3호 기적의 놀이터' 명칭인 '시가모노(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는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연 공모전에서 동산초등학교 6학년 배수환 학생의 제안이 최종적으로 선정돼 붙여진 이름이다.

'3호 시가모노 놀이터'가 기존의 1, 2호 놀이터와 다른점은 강정수변공원의 넓은 부지면적에서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놀 수 있도록 디자인 된 놀이터라는 점이다.

짚라인, 다인그네, 그물놀이 등이 들어섰고, 더운 여름철에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 분수도 곁들여졌다.

특히, 3호 시가모노에 조성된 유아들을 위한 '밸런스바이크장'은 독일의 세계적인 놀이터 디자이너인 권터 벨치히(Gunter Beltzig)와 국내 최고의 놀이터 디자이너인 편해문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함께 디자인한 작품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권터 벨치히

(Gunter Beltzig)작가는 "그 동안 기적의 놀이터 조성 과정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꾸준하게 조언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모험을 키워주는 기적의놀이터의 전파를 위해 힘써준 순천시에 '우정의 선물'로 밸런스바이크 장을 디자인했다"고 전했다.

총괄기획자 편해문 작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쁜 일상과 학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의 시간'을 허락하는 넉넉한 어른들의 마음도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순천에서 최초로 만든 기적의놀이터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순천=서종문 기자 jn8168@

순천만국가정원, 상춘객 '복적 복적'

봄꽃 축제·정원디자인전 등 주말 관람객 15만 명 넘어

순천시는 지난 6일 동천갯벌공원에서 차지연의 뮤지컬 갈라쇼로 화려한 개막을 연 순천만국가정원의 봄 축제에 주말 15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봄 축제는 '정원에 놀러와'란 부제의 일일 송이 봄꽃 축제로 톨립 등 250여종의 화려한 화훼 연출, 플라워파티 퍼레이드쇼, 코믹마술, 마칭밴드 등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했다.

또한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정원과 미래'를 주제로 22일까지 17일간 열리는 2018 대한민국 정원산업디자인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정원, 정원산업, 정원문화를 보여주며 관람객들에게 아날로그 정원에 테크놀로지를 결합시킨 전시로 신

선했다. 이번 축제는 내달 22일까지 동천 일원에서, 2018 대한민국 정원산업디자인전은 22일까지 서문광장 및 습지센터에서 개최된다.

/순천=서종문 기자 jn8168@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지역신문발전위원회
Local Press Commission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

전남도민일보